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권진욱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요약]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촛불시민혁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의 한국사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전개되었고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 위에 놓여있다.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주주의 이행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 이후에도 나타난다. 바로 촛불시민혁명은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으로서 권위주의적 국정농단 세력의 심판과 정권 교체로 1막을 내렸다.

6월항쟁 이후, 미완의 이행

6월항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이행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었지만 막상 헌법개정 단계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유신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적 조치로 봉인된 미완의 혁명이었다. 촛불시민혁명도 6월민주항쟁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단순히 정권교체로 마무리게 된다면, 6월항쟁이 이룩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

촛불 이후, 이행기 정의의 구현

민주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조응하면서 발전한다. 제도화된 정치가 정체될 때 그것을 보완하고 극복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이행과 함께 시효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6월항쟁이 이루지 못한 이행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현재화로서 민주화운동 기념이, 현재의 미래화로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며, 일상적 영역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화운동이 남긴 질문: 실질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심화

촛불시민혁명이 6월민주항쟁의 동어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할 것이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한국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 시민들에게 민주적 문화를 내면화시키는 사회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